

# 국제유가 80-85달러 회복된다!

## OPEC, 2010년 원유 생산량 유지 ... 그리스와 중국이 최대 변수

OPEC(석유수출국기구)이 최근 국제유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곧 80-85달러를 회복할 것이라며 연내 원유 생산량을 줄이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.

알제리의 차킵 켈릴 석유장관은 5월9일(이하 현지시각) 기자회견에서 “그리스 사태가 EU(유럽연합) 등의 지원으로 조만간 해결되면 유가가 배럴당 80-85달러대로 회복될 것으로 판단된다”고 말했다.

국제유가는 5월3일 뉴욕시장에서 배럴당 85.15달러로 18개월 사이 최고치를 기록한 후 그리스 위기 등의 타격으로 계속 떨어져 7일에는 75.11달러에 폐장됐다. 그러나 EU와 국제통화기금(IMF)의 그리스 지원이 결정되면서 시간외 거래에서 76달러에 육박하는 회복세를 보였다.

OPEC의 압둘라 알-바드리 사무총장도 “원유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”면서 그러나 유로 위기 등을 감안할 때 산유량 조정을 얘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언급했다.

알-바드리는 최근의 유가 하락이 투기자본 움직임과 관련돼 있다면서 OPEC이 목표 가격을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.

이에 셰이크 아마드 압둘라 알-사바 쿠웨이트 석유장관은 “유가가 65달러 밑으로 떨어지면 OPEC이 행동하게 될 것”이라고 말했다. 그러나 OPEC 관계자는 “유가가 그 수준까지 주저앉지는 않을 것”이라고 예상했다.

사우디의 알리 알-나미미 석유장관도 “석유 수급의 균형이 유지되고 있다는 판단”이라고 밝혔다.

한편, IEA(국제에너지기구)의 다나카 노부에 사무총장은 그리스 사태와 중국의 긴축 가능성이 국제 석유시장의 최대 위협변수라고 말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0/05/10>